

# 한국전통음악자료의 십진분류방법론 (韓國傳統音樂資料의 十進分類方法論)

文化財專門委員 李 輔 亭

- |               |                 |
|---------------|-----------------|
| 1. 머리말        | (5) 國樂概論        |
| 2. 韓國音樂分類의 事例 | (6) 音樂通論과 그 實習) |
| (1) 高麗史樂志     | 3. 韓國音樂의 分類方法)  |
| (2) 李王職雅樂部    | (1) 分類方法論       |
| (3) 朝鮮唱劇史     | (2) 應用分類        |
| (4) 國樂入門      | 4. 맺는말          |

## 1. 머리말

S.P 음반자료(音盤資料)를 제외(除外)하면 1960년대까지는 한국전통음악자료(韓國傳統音樂資料)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서십진분류법(韓國圖書十進分類法)에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의 분류표(分類表)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분류표(分類表)에 보면 670에는 서양 음악(西洋音樂)의 미학, 감상, 교수법, 악기 음악사(美學, 鑑賞, 教授法, 樂器 音樂史)에 관한 자료(資料)이며 671에는 작곡법, 화성법, 대위법, 악식론, 관현악법 등 음악이론서적(作曲法, 和聲法, 對位法, 樂式論, 管絃樂法 等 音樂理論書籍)에 대한 자료(資料)들이며, 672에는 주로 서양음악(西洋音樂)의 종교음악 자료(宗教音樂 資料)들이며, 673·674에는 가곡, 합창, 가극(歌曲, 合唱, 歌劇)등 성악곡(聲樂曲)들이며, 675에는 교향악, 관현악, 실내악(交響樂, 管絃樂, 室內樂)등 관현합주곡(管絃合奏曲)들이며, 676에는 Piano, Organ 등 건반악기(鍵盤樂器)의 음악(音樂)들이며, 677에는 Violin Viola, Cello등 현악기의 독주 및 협주곡(絃樂器의 獨奏 및 協奏曲)들이며 678에는 Flute, Oboe, Clarinet Trumpet 등 관악기(管樂器)의 독주(獨奏) 및 협주곡(協奏曲)들과 Timpani, Drum 등 타악기(打樂器)의 합주곡(合奏曲) 및 전자음악, 구체음악(電子音樂, 具體音樂), 컴퓨터음악(音樂) 등 기계(機械)로 제작(製作)된 음악(音樂)의 자료(資料)들이다. 679에는 한국음악(韓國音樂)의 자료(資料)들인데, 국악사, 국악이론, 성악, 한국악기 한국음악(國樂史, 國樂理論, 聲樂, 韓國樂器 韓國音樂)에 관한 자료(資料)들이다. 이 한국음악 자료 분류(韓國音樂 資料 分類)에는 분류방법(分類方法)도 체계가 없고 풍요, 성명악(風謠, 聖明樂) 등 실제 없는 음악(音樂)이 있다. 71에 한국어(韓國語), 81에 한국문학(韓國文學), 911에 한국역사(韓國歷史), 981에 한국지지(韓國地誌)에 분류(分類)된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음악(韓國音樂)이 너무나 체계없이 다루어진 것 같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의 연구논문, 이론, 악보, 음반(研究論文, 理論, 樂譜, 音盤), Tape등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한국전통음악학교 도서관(韓國傳統音樂學校 圖書館)이나,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혹은 민족음악연구소(民族音樂研究所)의 자료실(資料室)에 많은 자료(資料)들이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資料)들을 능률적(能率的)으로 정리(整理)하기 위하여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의 합리적(合理的)인 분류법(分類法)이 정(定)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은 종류, 악기편성, 악곡구성 등(種類, 樂器編成, 樂曲構成 등)이 서양음악(西洋音樂)과 다르게 되어 있고 또 연주자, 연주장소, 연주계기, 지역성, 의식(演奏者, 演奏場所, 演奏契機, 地域性, 儀式)등에 따른 문제(問題)가 있으므로 한국전통음악 분류(韓國傳統音樂分類)에는 도서관(圖書館)에 성격(性格)에 따라서 이 문제(問題)들을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課題)로 남아 있다.

## 2. 한국음악분류의 사례(韓國音樂分類的 事例)

음악(音樂)의 분류(分類)는 음악(音樂)의 종류(種類)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인데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의 종류(種類)는 시대(時代) 및 개인(個人)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 (1) 고려사 악지(高麗史 樂志)

고려사 악지(高麗史 樂志)에는 한국음악(韓國音樂)을 아악, 당악, 속악(雅樂, 唐樂, 俗樂)으로 분류(分類)하고 있다.

類分雅樂唐樂俗樂作樂志  
유분아악당악속악작악지

#### <고려사칠십 악일(高麗史七十 樂一)>

고려사 악지(高麗史 樂志)에서 말하는 아악(雅樂)이란 중국(中國)에서 문묘, 종묘(文廟, 宗廟)와 같은 제례, 제왕(祭禮, 帝王)의 거동, 연향(舉動, 燕饗) 등에서 연주(演奏)하던 음악(音樂)들이며 고려(高麗)에는 예종(睿宗)때 송(宋)에서 들어와서 태묘, 사직, 문선왕제(太廟, 社稷, 文宣王祭)등 제례(祭禮)와 일부 연례(宴禮)에도 쓰였다. 당악(唐樂)이란 용어(用語)는 아악(雅樂)이 들어오기 전 신라말기(新羅末期)에도 쓰던 것인데 당(唐)의 음악(音樂)이란 뜻이며 고려(高麗) 때에는 당(唐)의 음악(音樂)이 고려(高麗)에 많이 들어왔겠으나 문헌(文獻)에 나타나는 고려(高麗)의 당악(唐樂)의 내용(內容)은 주로 송(宋)의 교방악, 사곡(敎坊樂, 詞曲)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속악(俗樂)이란 흔히 향악(鄉樂)으로 불리워지던 것으로 당악(唐樂)이 들어온 뒤 당악(唐樂)의 대가되는 전래음악(傳來音樂)을 가리킨다. 음악(音樂)을 아당속(雅唐俗)으로 가른 것은 이 음악(音樂)들이 선율(旋律) 및 악기(樂器) 등이 달라서 서로 구별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음악(音樂)의 유래(由來)를 두고 분류(分類)한 것이다.

이 분류(分類)가 근세조선말기(近世朝鮮末期)까지 쓰여 왔다. 고려중기이래 환구제, 사직제, 선농제, 선잠제, 태묘제, 문선왕제(高麗中期以來 圓丘祭, 社稷祭, 先農祭, 先蠶祭, 太廟祭, 文宣王祭)등에 경안지곡, 영안지곡, 응안지곡, 격안지곡, 정안지곡(景安之曲, 寧安之曲, 凝安之曲, 格安之曲, 正安之曲) 등 수십곡(數十曲)의 아악곡(雅樂曲)이 쓰였고,

각종연향(各種宴享)에 헌선도, 수연장, 낙양춘, 보허자, 수룡음(獻仙桃, 壽延長, 洛陽春, 步虛子, 水龍吟)등 수십곡(數十曲)의 당악곡(唐樂曲)이 쓰였을 때에는 아악, 당악, 향악(雅樂, 唐樂, 鄉樂)의 분류(分類)가 합당(合當)했겠으나, 오늘날 제례악(祭禮樂)에는 문묘악, 종묘악(文廟樂, 宗廟樂)만이 쓰이고 있는데 종묘악(宗廟樂)은 세종, 세조(世宗, 世朝)때에 아악(雅樂)이 아닌 보태평, 정대업(保太平, 定大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악(雅樂)은 문묘악(文廟樂)만이 남아 있고, 연례(宴禮)에서도 많은 당악(唐樂)이 유전(遺傳)되지 못하고 낙양춘, 보허자(洛陽春, 步虛子)가 남아 있으나 이것 또한 당악(唐樂)의 특징(特徵)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악, 당악(雅樂, 唐樂)이란 용어(用語)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고려 향악곡(高麗 鄉樂曲)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근세조선후기(近世朝鮮後期)에는 새로운 향악곡(鄉樂曲)이 많이 나타났다. 고문헌(古文獻)의 향악곡(鄉樂曲)은 어디까지나 관청(官廳)이나 상류사회음악(上流社會音樂)인 경우가 많고 민중(民衆)이 즐기던 음악(音樂)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악, 당악, 향악(雅樂, 唐樂, 鄉樂)이란 음악(音樂)의 분류(分類)가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다.

## (2)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

1930년대에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서는 제례악, 연례악, 취악(관악), 현악, 세악, 합악, 독주(祭禮樂, 宴禮樂, 吹樂(管樂), 絃樂, 細樂, 合樂, 獨奏)등과 같은 음악(音樂)의 종류(種類)를 뜻하는 용어(用語)를 썼고 이 전통을 이어 받은 현국립국악원(現國立國樂院)에서는 제례악, 연례악, 군악(혹은 행악), 합악, 관현합주, 관악합주, 현악합주, 세악, 병주, 독주, 줄풍류(祭禮樂, 宴禮樂, 軍樂(혹은 行樂), 合樂, 管絃合奏, 管樂合奏, 絃樂合奏, 細樂, 並奏, 獨奏, 줄風流), 대풍류, 삼현육각, 등(等)과 같은 용어(用語)를 쓰고 있다. 제례악, 연례악, 군악(祭禮樂, 宴禮樂, 軍樂)과 같은 용어(用語)는 음악(音樂)의 용도(用途)에 따른 분류법(分類法)이며, 합악, 관현합주, 관악합, 관현악, 합주, 세악, 병주, 독주, 줄풍류(合樂, 管絃合奏, 管樂合, 管絃樂, 合奏, 細樂, 並奏, 獨奏, 줄風流), 대풍류, 삼현육각과 같은 용어(用語)는 악기편성(樂器編成)에 따른 분류법(分類法)이다.

제례악(祭禮樂)이란 문묘, 종묘(文廟, 宗廟) 등에 연주되는 문묘악, 종묘악(文廟樂, 宗廟樂)을 가리키는 것이며, 연례악(宴禮樂)이란 조회, 연향(朝會, 宴享) 등에 쓰이는 여민악, 수제천, 낙양춘, 보허자(與民樂, 壽齊天, 洛陽春, 步虛子)와 같은 음악(音樂)을 가리키며, 군악(軍樂)은 왕(王)의 거동(舉動)이나 군대(軍隊)의 행진(行進)에 쓰이는 대취타(大吹打)와 같은 행진곡(行進曲)을 가리킨다. 합악(合樂)이란 보태평, 낙양춘, 보허자(保太平, 洛陽春, 步虛子)와 같은 종경관현합주곡(種磬管絃合奏曲)이며, 관악합주(管樂合奏)는 향(鄉)피리가 중심(中心)이 되고 대금, 당적(大箏, 唐笛)과 같은 관악기, 소금, 아쟁(管樂器, 笑琴, 牙箏)과 같은 발현악기, 장고, 좌고(撥現樂器, 長鼓, 座鼓)와 같은 타악기(打樂器)가 합주(合奏)하는 수제천, 동동(壽齊天, 動動)과 같은 음악(音樂)이며 대풍류, 삼현육각도 여기에 들 수 있다.

현악합주(絃樂合奏)는 거문고가 중심(中心)이 되고 가얏고와 같은 탄현악기, 소금(彈絃樂器, 笑琴)과 같은 발현악기(撥現樂器), 세(細)피리, 대금 단소(大箏 短簫)와 같은 관악기, 장고(管樂器, 長鼓)와 같은 타악기(打樂器)가 합주(合奏)하는 거문고회상(현악영산회상)(會相, 絃樂靈山會相), 별곡(천년만세)(別曲, 千年萬世)과 같은 음악(音樂)이며 줄풍류

(風流)라고도 부른다. 세락(細樂)은 소규모편성(小規模編成)의 음악(音樂)을 뜻하는데 줄풍류도 여기에 들겠지만 염불타령, 수룡음(念佛打令, 水龍吟)과 같은 음악(音樂)을 소규모편성(小規模編成)으로 연주(演奏)할 때 이와 같은 용어(用語)를 쓴다. 병주, 독주(並奏, 獨奏)와 같은 편성(編成)의 음악(音樂)이 따로 궁중음악(宮中音樂)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편성(編成)의 음악(音樂)을 양금(洋琴)과 단소(短簫) 혹은 생황(笙簧)과 단소(短簫)와 같이 2개의 악기(樂器)로 편성(編成)해서 연주(演奏)하는 음악(音樂)을 병주(並奏)라 하며, 대금(大琴) 하나로 연주(演奏)하는 청성(淸聲)자진한잎과 같이 1개의 악기(樂器)로 연주(演奏)하는 음악(音樂)을 독주(獨奏)라 하였다.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서 궁중음악(宮中音樂)을 위와 같이 분류(分類)한 것은 알 수 있으나 궁중음악 이외(宮中音樂 以外)의 음악(音樂)을 어떻게 분류(分類)했는지 알 수 없다.

### (3)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

1939년에 나온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의 심당학인서(心堂學人序)에 한국음악(韓國音樂)의 분류표(分類表)가 있다. 한국음악(韓國音樂)을 궁정악(아악)(宮庭樂, 雅樂)과 민중악(民衆樂)으로 대별(大別)했고, 궁정악(宮庭樂)은 다시 제악, 연악, 군악(祭樂, 宴樂, 軍樂)으로 분류(分類)했다. 제악(祭樂)은 종묘악, 대성전악, 사직악, 천제악, 군제악(宗廟樂, 大成殿樂, 社稷樂, 天祭樂, 軍祭樂)등으로 나누었고 연락(宴樂)은 무극악, 무도악(舞劇樂, 舞蹈樂)으로 나누었고 군악(軍樂)은 개선곡, 거동곡(凱旋曲, 舉動曲)등으로 나누었다. 민중악(民衆樂)은 기악(器樂)과 성악(聲樂)으로 나누었다. 기악(器樂)은 영산회상곡(靈山會相曲)이라 했다. 성악(聲樂)은 다시 노래, 소리, 민요(民謠)로 나누었고 노래는 가사(백구사, 춘면곡 등 12종)(歌詞(白鷗詞, 春眠曲 등 12種)), 가곡(계면, 우주, 농, 편등 25곡)(歌曲(界面, 羽調, 弄, 編등 25曲))으로 나누었고 소리는 창극조(唱劇調)라 했다. 민요(民謠)는 남도가요, 경기가요, 서도가요, 기타가요(南道歌謠, 京畿歌謠, 西道歌謠, 其他歌謠)로 분류(分類)했다.

궁정악, 민중악, 제악, 연악, 군악, 종묘악, 대전정악, 사직악, 천제악, 군제악, 무극악, 무도악, 개선곡, 여동곡(宮庭樂, 民衆樂, 祭樂, 宴樂, 軍樂, 宗廟樂, 大成殿樂, 社稷樂, 天祭樂, 軍祭樂, 舞劇樂, 舞蹈樂, 凱旋曲, 與動曲) 등은 음악(音樂)의 용도(用途)에 따른 분류(分類)이며 기악, 성악(器樂, 聲樂)은 음악(音樂)의 악기편성(樂器編成)에 따른 분류(分類)이며, 노래, 소리는 음악적 특징(音樂的 特徵)에 따른 분류(分類)이며 남도가요, 경기가요, 서도가요(南道歌謠, 京畿歌謠, 西道歌謠) 등은 지역적(地域的)인 분류(分類)이다.

심당학인(心堂學人)의 분류(分類)는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의 종류(種類)를 체계적(體系的)으로 분류(分類)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오늘날 통용(通用)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제악(祭樂)에서 사직악, 천제악, 군제악(社稷樂, 天際樂, 軍祭樂)은 이미 쓰이지 않는 것이며, 연악(宴樂)에서 무극악(舞劇樂)과 무도악(舞蹈樂)은 따로 없는 것이며, 군악(軍樂)에서 개선곡(凱旋曲)과 거동곡(舉動曲)이 따로 있는지 의문이다. 악기(樂器)에는 농악, 산조, 좌악 등(農樂, 散調, 座樂 等)이 빠져 있고, 노래에는 시조(時調)가 빠져 있다. 소리와 민요(民謠)의 구별(區別)은 잘못이며 또 소리에는 판소리, 민요 외(民謠 外)에도 선소리(입창)(立唱), 잡가, 범패, 무가(雜歌, 梵唄, 巫歌) 등을 넣었어야 할 것이

다.

#### (4) 국악입문(國樂入門)

1972년에 나온 김기수저 국악입문(金琪洙箸 國樂入門)에는 국악(國樂)을 아악(정악)(雅樂, 正樂)과 속악(俗樂)으로 대별(大別)하고 아악(雅樂)은 궁정악(宮庭樂)과 정악(正樂)으로 대별(大別)했다. 궁정악(宮庭樂)은 다시 제례악, 연례악, 군례악(祭禮樂, 宴禮樂, 軍禮樂)으로 나누고 제례악(祭禮樂)은 악, 가, 무(樂, 歌, 舞)로 나누고 악(樂)에 등가악(登歌樂)과 헌가악(軒架樂)으로 가(歌)에 악장(樂章)과 여창(臚唱)으로 나누었고 무(舞)에는 유무(侑舞)가 있다.

연례악(宴禮樂)은 악, 가, 무(樂, 歌, 舞)로 나누고 악(樂)에 등가악(登歌樂)과 헌가악(軒架樂)으로 가(歌)에 악장(樂章)과 창사(唱詞)로 나누었고 무(舞)에 정재법무(呈才法舞)가 있다. 군례악(軍禮樂)에는 대취타, 취타(大吹打, 吹打)가 있다. 정악(正樂)에는 풍류(風流)와 정가(正歌)로 나누고 풍류(風流)에 줄풍류와 대풍류가 있다. 정가(正歌)는 가곡, 가사, 시조(歌曲, 歌詞, 時調)로 나누었다. 속악(俗樂)은 다시 신악(神樂)과 민속악(民俗樂)으로 나누고 신악(神樂)은 무악(巫樂)과 법악(法樂)으로 나누었다. 무악(巫樂)에는 당악, 가, 무(堂樂, 歌, 舞)가 있고 법악(法樂)에는 다시 법악, 범패, 작법(法樂, 梵唄, 作法)이 있다. 민속악(民俗樂)은 다시 농악, 남도악, 속요, 민속무(農樂, 南道樂, 俗謠, 民俗舞)로 나누었다. 농악(農樂)에는 농악, 가, 무(農樂, 歌, 舞)가 있고 남도악(南道樂)에는 시나위-산조(散調), 판소리-단가(短歌)로 나누었고 속요(俗謠)에는 잡가(雜歌), 선소리, 민요(民謠)로 나누었고 민속무(民俗舞)는 다시 민속무(民俗舞)와 가면무(假面舞)로 나누었다. 그리고 새국악을 아악(雅樂), 속악(俗樂)과 같이 대별(大別)하고 있다.

국악입문(國樂入門)의 한국음악분류법(韓國音樂分類法)은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의 것과 비슷하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는 정악(正樂)을 민중악(民衆樂)에 넣었는데 국악입문(國樂入門)에는 아악(雅樂)에 넣었다. 또 속악(俗樂)에 신악(神樂)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국악입문(國樂入門)의 분류(分類)는 거의 음악(音樂)의 용도(用途)에 의한 분류법(分類法)이다. 한국음악(韓國音樂)이 악·가·무(樂·歌·舞)라 하여 기악(器樂)과 성악(聲樂)과 무용(舞踊)이 함께 연출(演出)되는 종합예술적(綜合藝術的)인 특성(特性)을 살려서 악·가·무(樂·歌·舞)로 세분(細分)하고 있다. 궁정악(宮庭樂)과 정악(正樂)을 같은 음악적 특징(音樂的 特徵)이 있는 점에서 한데 묶은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아악(雅樂)이라는 용어(用語)는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의 아악(雅樂)과 혼동(混同)할 우려가 있고, 또 풍류(風流)나 정가(正歌)를 아악(雅樂)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문제(問題)가 있다. 신악(神樂)이라는 용어(用語)는 무악(巫樂)에는 적용되지만 법악(法樂)에도 적용이 될지, 또 무속기악곡(巫俗器樂曲)이 당악(堂樂)으로 통칭(通稱)되는지 의문이다. 또 기왕 종합예술(綜合藝術)로서 분류법(分類法)을 쓸것이면 연예음악(演藝音樂)도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5) 국악개론(國樂概論)

1975년에 나온 장사훈, 한만영 공저 국악개론(張師勛, 韓萬榮 共著 國樂概論)에는 장르별 분류법이라하여 한국음악(韓國音樂)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한국음악(韓國音樂)을 장르별로 아악, 범패, 무악, 산조(雅樂, 梵唄, 巫樂, 散調), 판소리, 잡가, 민요, 농악(雜歌, 民謠, 農樂)으로 나누었다. 아악(雅樂)은 다시 제례악, 관현합주, 관악, 가악(祭禮樂, 管絃合奏, 管樂, 歌樂)으로 나누었다. 제례악(祭禮樂)에는 문묘악, 종묘악, 경묘궁악(文廟樂, 宗廟樂, 景慕宮樂)이 있고 관현합주(管絃合奏)는 다시 향피리 중심(中心)이 되는 음악(音樂)과 거문고 중심의 음악 즉 줄풍류(風流)로 나누었고 향피리 중심음악(中心音樂)에는 평조희상, 여민락(平調會相, 與民樂)이 있고 거문고 중심음악(中心音樂)에는 현악영산희상, 계면가락환입, 양청환입, 우조가락환입, 미환입, 세환입, 보허사(絃樂靈山會相, 界面加樂還入, 兩淸還入, 羽調加樂還入, 尾還入, 細還入, 步虛詞)가 있다. 관악(管樂)에는 당피리 중심음악(中心音樂), 향(鄉)피리 중심음악(中心音樂), 취타(吹打)로 나누었고 당피리 중심음악(中心音樂)에는 보허자, 낙양춘, 만, 본령, 해령(步虛子, 洛陽春, 慢, 本令, 解令)이 있고, 향피리 중심음악(中心音樂) 즉 삼현육각(三絃六角) 대풍류에는 관악영산희상(管樂靈山會相), 정읍(井邑), 동동(動動), 자진한입(경풍년, 염양춘, 수용음), 염불, 타령(念佛, 打令), 굿거리가 있고 취타(吹打)에는 대취타, 취타, 길군악, 길타령, 별우조타령(大吹打, 吹打, 길軍樂, 길打令, 別羽調打令)이 있다. 가악(歌樂)에는 가곡, 가사, 시조(歌曲, 歌詞, 時調)가 있다. 잡가(雜歌)에는 십이잡가, 서도잡가, 산타령, 가야금 병창(十二雜歌, 西道雜歌, 山打令, 併唱)으로 나누었다.

국악개론(國樂概論)의 분류법(分類法)은 장르별(別)을 따르고 있는데 아악(雅樂)은 악기편성법(樂器編成法)을 적용하고 있다. 국악입문(國樂入門)의 경우와 같이 아악(雅樂)이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에서 아악(雅樂)과 다른 뜻으로 쓰임은 물론(勿論)이며 넓은 의미(意味)의 정악(正樂)이란 뜻인데 자진염불(念佛), 허튼타령(打令), 굿거리와 같은 음악(音樂)이 아악(雅樂)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어려운 문제(問題)로 남았고 또 아악(雅樂)이 문묘악(文廟樂)에서부터 보허자, 영산희상, 취타, 가곡(步虛子, 靈山會相, 吹打, 歌曲)까지 너무 많은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영산희상(靈山會相)과 가곡(歌曲)을 한데 묶을 수 있다면 산조(散調)와 판소리도 한데 묶을 수 있지 않은가? 또 산타령(山打令)과 가야금병창(併唱)을 잡가(雜歌)에 넣은 것도 종래의 개념과 다르다.

## (6) 음악통론(音樂通論)과 그 실습(實習)

1971년에 나온 이성천저 음악통론(李成千箸 音樂通論)과 그 실습(實習)에 우리 나라 곡조(曲調)의 분류(分類)가 있다. 한국음악(韓國音樂)을 기악(器樂)과 성악(聲樂)으로 대별(大別)하고 기악(器樂)은 독주, 병주, 세악, 삼현육각(獨奏, 並奏, 細樂, 三絃六角), 대풍류(관악합주), 줄풍류(현가합주), 합악(관현악), 농악, 대취타, 종교음악(대풍류(管樂合奏), 줄풍류(絃歌合奏), 합樂(管絃樂), 農樂, 大吹打, 宗教音樂)으로 나누었다. 독주(獨奏)에는 청성(淸聲)자진한입, 산조악(散調樂)있고, 병주(並奏)에는 염불타령, 수룡음(念佛打令, 水龍吟)이 있고, 세악(細樂)에는 영산희상, 천년만세, 세환입, 미환입(靈山會相, 千年萬歲, 細還入, 尾還入)이 있고, 삼현육각(三絃六角)에는 염불, 타령(念佛, 打令), 굿거리가 있고, 대풍류에는 관악영산희상(管樂靈山會相)이 있고, 줄풍류에는 황하청(黃河淸),

거문고회상(會相)이 있고, 합악(合樂)에는 수제천(정음), 보허자, 낙양춘, 동동, 여민락, 취타(壽齊天(井邑), 步虛子, 洛陽春, 動動, 與民樂, 吹打)가 있고, 종교음악(宗教音樂)에는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文廟祭禮樂, 宗廟祭禮樂, 景慕宮祭禮樂), 시나위가 있다. 성악곡(聲樂曲)은 가악, 민요, 잡가(歌樂, 民謠, 雜歌), 판소리, 종교음악(宗教音樂), 기타(其他)로 나누었다. 가락(歌樂)은 가곡, 가사, 시조(歌曲, 歌詞, 時調)로 나누었고, 민요(民謠)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京畿民謠, 南道民謠, 西道民謠)로 나누었고, 잡가(雜歌)는 선소리, 십이잡가(十二雜歌), 휘모리잡가(雜歌), 기타 잡가(其他 雜歌)로 나누었다.

「음악통론(音樂通論)과 그 실습(實習)」에서 한국음악(韓國音樂)의 분류법(分類法)을 보면 악기편성법(樂器編成法)에 중중(中重)을 두었다. 성악곡(聲樂曲)의 경우에는 장르별 분류법(分類法)을 쓰고 있다. 이 분류법(分類法)은 가장 서양음악(西洋音樂)의 십진분류법(十進分類法)을 따르고 있다고 보겠다. 병주, 세악, 삼현육각(並奏, 細樂, 三絃六角), 대풍류, 줄풍류, 합악(合樂)이 모두 악기편성(樂器編成)이며 악곡(樂曲)의 장르는 아니다. 따라서 같은 악곡(樂曲)이 악기편성(樂器編成)을 바꿈으로써 분류(分類)가 유동(流動)될 수 있다. 엽불타악(念佛打樂)과 수룡금(水龍吟)은 병주, 세악, 삼현육각(並奏, 細樂, 三絃六角)으로 각각(各各) 달리 편성(編成)할 수 있다. 세악(細樂)과 줄풍류, 삼현육각(三絃六角)과 대풍류의 구분도 모호하다. 민요(民謠)의 분류(分類)는 더욱 세분(細分)하는 것이 옳겠고, 선소리는 잡가(雜歌)에서 분잡(分雜)해야 하며 보림은 남도(南道) 선소리에 넣어야 하며, 기타잡가(其他雜歌)에서 변강쇠타령은 긴잡가(雜歌)에 넣어야겠고 공명가(孔明歌) 등은 서도잡가(西道雜歌)에 넣어야 옳다고 본다.

### 3. 한국음악(韓國音樂)의 분류방법(分類方法)

지금까지 여러 문헌(文獻)에 나타난 한국음악(韓國音樂)의 분류방법(分類方法)은 여러 가지인 것을 알았다. 고려사악지, 국악입문(高麗史樂志, 國樂入門)에는 음악(音樂)의 용도(用途)에 따라 분류(分類)했고, 국악개론(國樂概論)에는 장르별로 분류(分類)했고, 「음악통론(音樂通論)과 그 실습(實習)」에는 악기편성(樂器編成)에 중점을 두고 분류(分類)했다. 어느 분류방법(分類方法)을 쓰든지 한국음악(韓國音樂)의 전반적인 분류(分類)에는 장단점(長短點)이 있어서 각각 문제(各各 問題)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음악자료(韓國傳統音樂資料)의 십진분류(十進分類)에도 이러한 문제점(問題點)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분류방법론(分類方法論)

한국음악(韓國音樂)의 분류방법(分類方法)에는 음악(音樂)의 유래(由來),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는 장소, 연주(場所, 演奏)하는 계기, 연주자(契機, 演奏者)의 신분, 작곡자, 향수자(身分, 作曲者, 享受者)의 신분, 악기편성(身分, 樂器編成), 그 음악(音樂)이 발생(發生)했던 지역성, 악곡구성, 발생적(地域性, 樂曲構成, 發生的)인 계열, 음악적 특징(系列, 音樂的 特徵) 등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① 음악(音樂)의 유래(由來) 및 계열(系列)에 의한 분류(分類)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의 아악, 당악, 향악(雅樂, 唐樂, 鄉樂)은 음악(音樂)의 유래(由來)에 의한 분류(分類)이다. 아악(雅樂)은 중국고대(中國古代)에서, 궁중음악(宮中音樂)은 당악(唐樂)이 들어오기 이전(以前)에, 우리 나라 전래(傳來)의 것이든지, 서역(西域)에서 들어 온 것이든지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쓰여진 음악(音樂)에서 유래(由來)된다.

현용 한국음악(現用 韓國音樂)을 보면, 문묘악(文廟樂)은 근세조선 세종(近世朝鮮 世宗)때 박연(朴堧)이 원조(元朝)의 임자(林字)가 쓴 대성악보(석존악보)(大成樂譜(釋尊樂譜))를 토대로 정비(整備)한 것인데 중국 고대 아악(中國 古代 雅樂)에서 유래(由來)한다.

출원조 임자 대성악보 영신곡 황중궁 대여이하 십일궁 의비이연(出元朝 林字 大成樂譜 迎神曲 黃鍾宮 大呂以下 十一宮 衣比而演

<세종실록 권137(世宗實錄 卷137)>

종묘악(宗廟樂)은 근세조선 세종9년(近世朝鮮 世宗9年)에 세종(世宗)이 전래 고취악(傳來 鼓吹樂)과 향악(鄉樂)을 토대로 편곡(編曲)한 것이며 세조(世祖)때부터 종묘(宗廟)에 쓰였다.

세종 인고취악급향악 창위신악 일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世宗 因鼓吹樂及鄉樂 創爲新樂 日定大業 保太平 發祥 鳳來儀)

<세종실록 권126(世宗實錄 卷126)>

경모궁제례악(景慕宮祭禮樂)은 정조(正祖)때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축소 편곡(編曲)한 것이다.

여민락(與民樂)은 근세조선(近世朝鮮) 세종(世宗) 때 전래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鄉樂)을 참작하여 창작(創作)한 것이다. 낙양춘, 보허자(洛陽春, 步虛子(步虛詞))는 송(宋)나라 사악(詞樂)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다. 정읍(수제천)(井邑(壽齊天))과 동동(動動)은 고려(高麗)때 향악(鄉樂)에 보이는 정읍(井邑)과 동동(動動)에서 유래(유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용 영산회상(現用 靈山會相)은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上靈山, 中靈山, 細靈山), 가락더리, 삼현환입, 하현환입, 염불, 타령, 군악(三絃還入, 下絃還入, 念佛, 打令, 軍樂)으로 구성(構成)되어 있고 또 이와 비슷한 계기(契機)로 연주(演奏)하는 미환입, 세환입, 양청환입, 우조환입(尾還入, 細還入, 兩淸還入, 羽調還入)이 있다. 상영산(上靈山)은 세조(世祖) 때 궁중(宮中)에서 영산회상불보살 7자(靈山會相佛菩薩 7字)를 얹어 부르던 불교음악(佛敎音樂)의 성악곡(聲樂曲)이 기악화(器樂化)된 것이며 이것이 변주(變奏)되어 중영산, 세영산(中靈山, 細靈山), 가락더리, 삼현환입(三絃還入)이 되었다. 하현환입(下絃還入)은 삼현환입(三絃還入)의 변주(變奏)이다. 염불(念佛)은 불교음악 육자염불(佛敎音樂 六字念佛)과 삼현환입(三絃還入)의 일부를 변주(變奏)한 것이며 타령(打令)은 민간기악곡(民間器樂曲)을, 군악(軍樂)은 행악계음악(行樂係音樂)을 덧붙인 것으로 상영산(上靈山)과는 관계가 없다. 미환입(尾還入)은 보허자(步虛子)를 변주(變奏)한 곡(曲)이며 세환입, 양청, 우조(細還入, 兩淸, 羽調)는 미환입(尾還入)을 변주(變奏)한 곡(曲)이다. 영산회상(靈山會相)이 거문고 중심(中心)으로 된 것이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이며 향피리 중심(中心)으로 된 것이 관악영산회상(管樂靈山會相)이며 악곡구성(樂曲構成)을 바꾼 것이 별곡(別曲)(정상지곡)(呈祥之曲)이며, 이조(移調)한 것이 평조회상(平調會相)(류초신지곡)(柳初新地曲)

調會相(柳初新之曲))이다.

현용 가곡(現用 歌曲)은 수대엽(數大葉), 룡, 악, 편(數大葉, 弄, 樂, 編)등 합(合)하여 50여곡이 되는데 모두 수대엽(數大葉)에서 파생(派生)된 것이며 수대엽(數大葉)은 이미 없어진 중대엽(中大葉), 만대엽(慢大葉)과 함께 고려 향악(高麗 鄉樂)에서 유래(由來)되는 것이다.

현용시조(現用時調)는 평시조(平時調), 중허리시조(時調), 지름시조(時調), 위음시조 등(時調 等) 10여종(9餘種)이 있는데 모두 평시조(平時調)의 변형(變形)이며 수잡가(首雜歌), 휘모리잡가(雜歌) 등도 위음시조 형태(時調 形態)에 들고 노래가락도 시조(時調)의 형태(形態)로 되었다.

그런데 평시조(平時調)는 가곡(歌曲)과 사설(辭說)이 같고 음악(音樂)은 가곡(歌曲)보다 평이(平易)하게 되었다.

가사(歌詞)는 장형사설(長型辭說)을 갖는데 정가(正歌)의 아정(雅正)한 선율(旋律)을 갖는 것을 통칭 가사(通稱 歌詞), 혹은 십이가사(十二歌詞)라고 부른다. 가사체(歌辭體)의 장형사설(長型辭說)을 갖고 비교적 반랑송조(半朗頌調)의 평이(平易)한 선율(旋律)을 갖는 것으로는 경기(京畿), 긴잡가(雜歌), 서도잡가, 남도단가, 내방가사, 화청(西道雜歌, 南道短歌, 內房歌詞, 和請), 선염불(念佛) 등이 있다. 이러한 장형가사(長型歌詞)의 전통(傳統)은 고려경기체가, 어부사(高麗景畿體歌, 漁夫詞)와 같은 향악(鄉樂)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불, 타령(念佛, 打令), 굿거리(는 무용음악(舞蹈音樂)이며 삼현육각(三絃六角)인데 이 점은 정음, 동동, 관악영산회상(井邑, 動動, 管樂靈山會相)과 같은 장르에 속한다. 삼현육각편성(三絃六角編成)으로 경풍년, 수용음, 염양춘, 취타(慶豐年, 水龍吟, 艷陽春, 吹打), 길군악, 길타령,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이 있는데 경풍년, 수용음, 염양춘(慶豐年, 水龍吟, 艷陽春)은 가곡 선율(歌曲 旋律)을 기악화(器樂化)한 것이며, 취타(吹打), 길군악, 길타령,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은 대취타(大吹打)와 같이 행악(行樂)에 든다. 대취타(大吹打)와 취타(吹打)는 같은 음악(音樂)인데 대취타(大吹打)와 같은 조라치의 음악(音樂)이 어디서 유래(由來)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판소리는 성악곡(聲樂曲)이며 산조(散調)는 기악(器樂)이지만 음악적 특징(音樂的 特徵)은 동질(同質)의 것이고 연주자(演奏者) 및 연주(演奏)하는 계기(契機)도 같다. 이것들은 판노름이라는 연희(演戲)에서 판줄, 땅재주와 같이 자라왔는데 이러한 판노름은 상고시대 제천의식(上古時代 祭天儀式)에 딸렸던 가무백희(歌舞百戲)와 관계(關係)가 있다. 제의식(祭儀式)에 딸린 음악(音樂)으로 농악(農樂)이 있는데 농악(農樂)은 의식(儀式)에도 쓰이고 연희(演戲)에도 쓰이며 행악(行樂)에도 쓰이는데 농악(農樂)이 대취타(大吹打)와 비슷한 편성(編成)으로 된 것은 행악(行樂)으로써 기능(機能)이 같은데 있는 것 같다.

무속음악(巫俗音樂)은 종류(種類)마다, 지역(地域)마다 다른 점이 있지만 모두 향토선율(鄉土旋律)에 향토적(鄉土的)인 장단(長短)(굿거리형 자진모리형)이 주로 쓰이는 점에서 서로 같다. 무당의 무가, 대동(巫歌, 大同)굿의 고사소리, 걸립패의 선염불, 건립승(僧)의 평염불(平念佛)이 같은 범주에 든다.

판노름의 연희중(演戲中)에 사당패는 사원(寺院)이 패트론이었는데 그 유래(由來)가 서로 달라진 것 같다. 이 계열의 음악(音樂)을 민속연희화(民俗演戲化)해서 지금은 소리꾼들이 선소리(입창)(立唱)로 승화시켰으나 경기(京畿) 놀랑, 서도(西道)놀랑, 남도 화초(南道 花草)사거리(는 아직도 같은 특징(特徵)이 남아있다.

종교음악(宗教音樂)에는 제례악, 무속음악 외(巫俗音樂 外)에도 불교음악(佛敎音樂)이 있는데 이들의 기능(機能)은 같지만 음악적 특징(音樂的 特徵)은 다르다. 불교음악(佛敎音樂)에서 범패(梵唄)의 음악(音樂)은 무가(巫歌)나 관소리와 달라서 음악적(音樂的)인 느낌은 오히려 정악(正樂) 특히 가곡(歌曲)에 가깝다. 범패(梵唄)에는 짓소리와 훗소리가 있는데 훗소리는 보다 향토적(鄉土的)인 특징(特徵)이 있다. 범패(梵唄)가 외래음악(外來音樂)에서 유래(由來)하는 것이라면 짓소리가 그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② 연주장소 계기 연주자(演奏場所 契機 演奏者)의 신분(身分)에 의한 분류(分類) 한국상고시대음악(韓國上古時代音樂)에 관한 중국고대기록(中國古代記錄)에는 음악(音樂)이 광장(廣場)에서 연출(演出)되었던 것 같다.

상이오월하종홀 제귀신 군취가무음주 화야(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飲酒 晝夜)

무휴 기무수십인 구기상수 답지저묘 수족상(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

응절 주유이탁무 십월농공필 적복여지(應節 奏有以鐸舞 十月農功畢 赤復如之)

<삼국지 위지권30 동이전 마한조(三國志 魏志券30 東夷傳 馬韓條)>

이러한 제귀신음악(祭鬼神音樂)에서 무수십인(舞數十人)하는 것은 오늘날 대동(大同)굿이나 별신(別神)굿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역시 연주(亦時 演奏)되는 장소(場所)는 광장(廣場)이다. 이러한 광장(廣場)을 「굿판」이라 하고 광장(廣場)에 설(說)한 제단(祭壇)을 「굿칭」이라 한다. 이러한 동축제(洞祝祭)의 굿판에는 농악(農樂), 줄타기, 땅재주와 같은 연희(演戲)가 딸리는데 이러한 연희(演戲)는 굿판과 별도로 순수하게 노름노리를 위하여 벌리는 경우는 수수한 판노름이 되는 것이다.

판노름에 참가하는 연희집단(演戲集團)에 따라 음악(音樂)의종류(種類)가 달라진다. 광대재인(廣大才人)은 노리판(광장)(廣場)에 구경군이 둘러선 가운데 굿판을 설한다. 돛자리를 깔고 창우(倡優)가 판소리를 부르고 나면 줄광대(廣大)가 줄위에서 판줄을 엮어 가는데 삼현육각(三絃六角)에 맞추어 춤을 추고 어릿광대(廣大)와 재담(才談)을 하며 소리도 한다.

줄광대(廣大)는 땅에 내려와 땅재주를 연출(演出)한다. 이와는 따로 걸림패들은 풍물(農樂)(農樂)놀이를 한다. 판노름을 사당패들이 벌리는 경우에는 판염불이 가무(歌舞)로 연출(演出)되었는데 이 소리를 이어 받은 잔지패도 선소리를 발림하며 부른다.

선소리는 방(房)안 소리의 대(對)가 되는 광장(廣場)소리라는 뜻이며 사당패나 잔지패의 판염불과 같은 판노름의 소리가 아닌 경우에도 선소리라하는데 전답(田畓)에서 농부(農夫)들이 부르는 농요(農謠), 상두군들의 지경단이소리의 경우에도 메기는 소리를 선소리라 한다. 역군(役軍)들이 부르는 노동요(勞動謠)에는 농요(農謠), 상두소리 외에도 어부요, 초부요, 역사요(漁夫謠, 樵夫謠, 役事謠) 등 많은 소리들이 불리워진다.

선소리의 대(對)가 되는 방안소리는 민중(民衆)들이 사랑에서 목침들림을 하며 부르는 오락요(娛樂謠)로 전라도(全羅道) 육자백이와 평안도 수심가(愁心歌)가 유명(有名)하다. 방안소리를 잘 부르는 소리군은 도시(都市)의 상공인(商工人)들 사이에 특수(特殊)한 조직(組織)이 있어 그들의 공청에서 잡가(雜歌)를 부르고 시조(時調)를 불렀다. 서도(西道)에서는 공명가, 초한가(孔明歌, 楚漢歌)와 같은 서도잡가(西道雜歌)를 경기(京畿)에서는 긴잡가(雜歌), 휘모리잡가(雜歌), 시조, 매화타령(時調, 梅花打令)과 같은 가사, 수잡가

(歌詞, 首雜歌)를 부르기도 했다.

가사(歌詞)는 본래 풍류방(本來 風流房)에서 가객(歌客)들이 불렀다. 풍류방(風流房)은 상류사회(上流社會)의 사랑에 꾸며진 음악실(音樂室)로 시인묵객(詩人墨客)과 더불어 가객 율객(歌客 律客)이 모이던 방(房)이며 그들의 방안 풍류(風流)에는 율객(律客)이 영산회상(靈山會相)과 가객(歌客)의 가곡(歌曲)이 불리워졌다.

풍류방(風流房)의 율객(律客)들 가운데는 궁중(宮中)의 장악원 악수(掌樂院 樂手)나 지방관아(地方官衙)의 교방청 악수(敎坊廳 樂手)들도 참가한다. 그러나 장악원(掌樂院)과 교방청 악수(敎坊廳 樂手)들은 왕실(王室)과 관아(官衙)의 연악(宴樂)이나 행악(行樂)을 연주(演奏)하는 것이 본업(本業)이다. 지방관아(地方官衙)에서는 교방청 악수(敎坊廳 樂手)들이 연향(宴享)에서 삼현(三絃)을 치고 행차(行次)에서 취타(吹打)를 치지만, 왕실(王室)에서 장악원 악수(掌樂院 樂手)는 연향(宴享)에서 연례악(宴禮樂)을 아뢰고 거동(舉動)에는 행악(行樂)을 아뢰었고 오아영(五衙營)에는 따로 취타수(吹打手)가 있어서 취타(吹打)를 연주(演奏)했다. 장악원 악수(掌樂院 樂手)들은 종묘, 문묘(宗廟, 文廟)의 제향(祭享)에서 제례악(祭禮樂)을 아뢰고 악장(樂章)을 불렀다. 궁정(宮庭)과 종묘, 문묘(宗廟, 文廟)의 음악(音樂)에는 대들 위에서 연주(演奏)하는 등가악(登歌樂)과 대들 아래에서 연주(演奏)하는 헌가악(軒嘉樂)이 있다. 이와 같은 연주장(演奏場)은 방(房)도 아니고 광장(廣場)도 아닌 전정(殿庭)이라 부른다. 전정음악(殿庭音樂)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사원(寺院)의 제음악(齊音樂)도 어장(魚丈)들이 전정(殿庭)에서 연출(演出)하는 것이다.

### ③ 악기편성(樂器編成)에 의한 분류(分類)

삼현육각(三絃六角), 줄풍류(사풍류(絲風流), 거문고회상(會相), 현악영산회상) 대풍류(관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 대風流(管樂靈山會相))라는 말 외에는 한국음악(韓國音樂)에 악기편성(樂器編成)에 관한 용어(용어)들이 별로 없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은 향피리 2(목피리, 곁피리), 대금, 소금, 장고, 북(좌고)(大琴, 笑琴, 長鼓, 북(座鼓))으로 여섯 개의 악기(樂器)라 하여 육(六)잡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염불, 타령(念佛, 打令), 굿거리와 같은 무용음악(舞踊音樂)과 길군악, 길타령, 같은 행악(行樂)의 편성(編成)으로 쓰여 있다. 그밖에 대풍류(관악영산회상)(風流(管樂靈山會相)), 정음, 동동(井邑, 動動)의 경우에도 삼현육각(三絃六角)의 편성(편성)에 준하여 단(單)재비를 복수(複數)로 하고 또 아쟁, 당적(牙箏, 唐笛)과 같은 악기(樂器)를 덧붙인 것이다. 이러한 음악(音樂)은 합(合)피리가 중심(中心)이 되는데 향(鄉)피리 말고 당(唐)피리가 중심(中心)이 되는 음악(音樂)으로 보허자, 낙양춘, 만, 본령, 해령(步虛子, 洛陽春, 慢, 本令, 解令)이 있다. 이들 악곡(樂曲)은 당피리, 대금, 당적, 소금, 아쟁, 장고, 좌고, 외(唐笛, 笑琴, 牙箏, 杖鼓, 座鼓, 外)에 편종, 편경(編鍾, 編磬)이 곁드리기도 한다.

편종, 편경(編鍾, 編磬)과 관악기, 현악, 타악기(管樂器, 絃樂, 打樂器)로 편성(編成)되는 음악(音樂)을 관현중경합주(管絃鍾磬合奏)라고도 부르는데 중경합주(鍾磬合奏)에는 제례악(祭禮樂)인 종묘악(宗廟樂)과 문묘악(文廟樂)이 있다. 문묘악(文廟樂)은 편종, 편경, 호, 훈, 약, 적, 금, 슬, 생, 소, 축, 어, 박(編鍾, 編磬, 虎, 埴, 簫, 篳, 琴, 瑟, 笙, 簫, 柷, 敍, 拍)과 같이 아악기(雅樂器)만으로 편성(編成)되어 한국전통음악중(韓國傳統音樂中)에 가장 색(色)다른 편성(編成)으로 되었다. 반면에 종묘악(宗廟樂)의 경우에는 보태

평(保太平)이 편종, 편경, 방향(編鍾, 編磬, 方響), 당피리, 대금, 소금, 아쟁, 장고, 절고, 축, 어, 박(大琴, 笑琴, 牙箏, 杖鼓, 節鼓, 柷, 敵, 拍)으로 되었으며 정대업(定大業)이 보태평(保太平)의 편성(編成)에 태평소, 대금(太平簫, 大金)이 덧붙이는 편성(編成)으로 돼 있는 점은 다른 중경합주(鍾磬合奏)에 가깝다. 정대업(定大業)이 태평소대금(太平簫大金)이 편성(編成)되는 것은 대취타 편성(大吹打 編成)과 통(通)한다. 대취타(大吹打)는 태평소, 정(대금)(太平簫, 鉦(大金)), 바라, 장고, 용고(杖鼓, 龍鼓), 소라, 나팔로 편성(編成)되어 삼현육각(三絃六角)으로 편성(編成)되는 취타(吹打), 길군악, 길타령,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과 구별된다.

삼현육각(三絃六角)으로 편성(編成)과 다른 취타(吹打)는 세악취타(細樂吹打)라 하여 대취타(大吹打)의 편성(編成)과 다른 취타(吹打)로 구분되는데 세악(細樂)이라는 말이 근년(近年)에는 소규모편성음악(小規模編成音樂)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이기도 한다. 중경합주(鍾磬合奏)를 합악, 소규모편성(合樂, 小規模編成)을 세악, 중주(細樂, 重奏)를 병주(併奏)라 하는 것은 근년(近年)에 쓰는 용어(用語)라 한다.

태평소(太平簫), 나팔, 대금, 소금, 고(나팔, 大琴, 笑琴, 鼓)로 편성(偏性)되는 대취타(大吹打)와 비슷한 편성(編成)으로 농악(農樂)이 있다. 둘 다 악기편성(樂器編成)이 비슷하고 행악(行樂)으로 쓰이는 점은 같으나 대취타(大吹打)는 태평소(太平簫)가 중심(中心)이고 농악(農樂)은 소금(笑琴)(쟁과리)이 중심(中心)이 된다. 대부분(大部分)의 무악(巫樂)은 농악(農樂)과 비슷한 편성(編成)이 되는데 태평소(太平簫)와 나팔은 쓰지 않고 지방(地方)에 따라 향피리, 대금, 소금(大琴, 笑琴)을 곁드리는 경우도 있다. 향피리, 대금, 소금, 장고(大琴, 笑琴, 杖鼓), 징으로 편성(編成)되는 무악(巫樂)은 염불(念佛), 허튼타령(打令), 굿거리, 당악, 시나위를 연주(演奏)하는데 이 편성(編成)은 삼현육각(三絃六角)과 비슷하다. 시나위는 삼현육각(三絃六角)과 비슷한 편성(編成)이 원칙이지만 독주(獨奏)로 연주(演奏)하기도하며 이러한 독주(獨奏) 시나위는 산조(散調)와 같은 음악(音樂)으로 발전(發展)되었다.

삼현육각(三絃六角)과 같은 편성(編成)인 대풍류(風流)의 대가 되는 것이 줄풍류(風流)이다. 줄풍류(風流)는 거문고, 가야금과 같은 탄현악기(彈絃樂器)에 대금(大琴), 세피리와 같은 관악기(管樂器)와 소금(笑琴)과 같은찰현악(擦絃樂)이 덧붙여 편성(編成)된 것이다.

이러한 편성(編成)은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뿐만 아니라 별곡(천년만세)(別曲(千年萬歲))과 미환입, 세환입(尾還入, 細還入) 등이 있고 보허사(步虛詞)는 거문고, 가야금, 비파(琵琶), 양금(洋琴) 등 탄현악기(彈絃樂器)에 장고반주(杖鼓伴奏)가 곁드린 것도 있다. 줄풍류와 삼현육각(三絃六角)이 합쳐진 편성(編成)으로 평조회상(平調會相)과 여민락(與民樂)이다.

거문고, 가야금, 양금(洋琴)이 편성(編成)되는 것은 줄풍류와 같고 향피리, 대금, 소금, 장고, 좌고(大琴, 笑琴, 杖鼓, 座鼓)가 편성(編成)되는 것은 삼현육각(三絃六角)과 같다. 실제로 이들은 무용반주(舞踊伴奏) 혹은 행악(行樂)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성(編成)이 된 것 같다.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에서 성악(聲樂)은 독창(獨唱) 아니면 제창(齊唱)이다. 노동요(勞動謠)에서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 혹은 받는 소리의 제창(齊唱)까리 선율(旋律)이 어긋나지만, 이것은 Heterophony이다. 가곡(歌曲)에서 태평가(太平歌)의 남녀이중창(男女二重唱), 그리고 구음(口音)시나위와 무가(巫歌)의 다성적(多聲的)인 요소(要

素)가 있으나 예(例)가 많지 않다.

## (2) 응용분류법(應用分類法)

음악자료(音樂資料)의 십진분류법(十進分類法)은 십진법(十進法)이라는 수치(數值)에 자료(資料)의 종류(種類)를 응용분류(應用分類)해야 하는데 먼저 어떠한 분류방법론(分類方法論)을 토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問題)가 대두된다. 이때 분류방법(分類方法)의 선택은 자료(資料) 열람자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면 십진분류법(十進分類法)은 자료 능률적(資料 能率的)인 분류 정리 보존(分類 整理 保存)과 함께 열람자(者)의 능률적(能率的)인 이용(利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람자(者)는 자료(資料)에 대한 기초적인 예비지식만으로 열람하게 되는데 그 예비지식이 음악(音樂)의 어떤 분류법(分類法)에 기초를 두었는가에 따라, 다시 말해서 열람자의 전공, 학식, 직업, 이용목적(學識, 職業, 利用目的)에 따라 음악(音樂)의 연주장소, 계기, 연주자 신분(演奏場所, 契機, 演奏者 身分)에 의한 분류방법(分類方法)이 필요하기도하고 음악(音樂)의 유래(由來), 악곡(樂曲)의 계열(系列), 장르에 의한 분류방법(分類方法) 혹은 악기편성, 연주자 개인별(樂器編成, 演奏者 個人別)에 의한 분류방법(分類方法)이 필요(必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圖書館)의 이념, 자료(理念, 資料)의 특성(特性), 열람자(者)의 전공에 따라 먼저 분류방법(分類方法)을 택한 다음 이것을 십진법(十進法)에 응용(應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0에 한국음악(韓國音樂)의 서지, 사전, 색인, 잡지 등 총류(書誌, 辭典, 索引, 雜誌 等 總類)관한 자료(資料), 1에는 악리론, 악기론, 악제론 등 이론서적(樂理論, 樂器論, 樂制論 等 理論書籍)에 대한 자료(資料), 2에 한국음악사, 악성전, 명인명 창전(韓國音樂史, 樂聖傳, 名人名, 唱傳)과 같은 음악사 자료(音樂史資料), 9에 기타자료(其他資料)로 분류(分類)한다면 나머지 6개강목(個綱目)에 음악(音樂)의 악보(樂譜)나 녹음자료(錄音資料)를 분류(分類)해 넣어야 한다. 만일 일반 도서관(圖書館)이나 서양음악학교 도서관(西洋音樂學校 圖書館) 혹은 방송국(放送局)에서 서양음악(西洋音樂)과 함께 분류(分類)하여 한국음악(韓國音樂)을 679나 기타(其他) 다른 요목(要目)에 분류(分類)한다면 1, 2를 이론(理論), 역사(歷史)에 배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전통음악학교(韓國傳統音樂學校) 및 전통음악연구소(傳統音樂研究所)에서는 6개강목(個綱目)에 자료(資料)를 응용분류(應用分類)해야 되는데 악기편성(樂器編成) 장르별 분류법(分類法)을 택할 경우에, 예(例)를 들어 장사훈저 국악개론 분류법(張師勳著 國樂概論 分類法)을 토대(土臺)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分類)하는 방법(方法)이 있을 수 있다.

- 0..... 서지, 사전, 색인, 잡지(書誌, 辭典, 索引, 雜誌)
- 1..... 악이론, 악기론, 악제론, 악리논문(樂理論, 樂器論, 樂制論, 樂理論文)
- 2..... 음악사, 명인명창전, 음악사논문(音樂史, 名人名唱傳, 音樂史論文)
- 3..... 아악 I <문묘악, 종묘악(文廟樂, 宗廟樂)>, 아악 II <당피리 중심음악(中心音樂)>
- 4..... 아악 III <향피리 중심음악>. 아악 IV <행악(行樂)>
- 5..... 아악 V <가곡, 가사, 시조(歌曲, 歌詞, 時調)>, 범패, 화청(梵唄, 和誦)
- 6..... 산조, 농악, 무악(散調, 農樂, 舞樂)
- 7..... 판소리, 잡가(雜歌)

8..... 민요, 무가(民謠, 舞歌)

9..... 기타(其他)

강목(綱目)은 한 분류방법(分類方法)을 택하고 요목(要目)은 다른 분류방법(分類方法)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서양음악(西洋音樂)의 경우와 같이 악기편성법 분류법(樂器編成法 分類法)으로 강요목(綱要目)을 분류(分類)하고 다음에 작곡자별(作曲者別) 알파벳식(式)으로 분류(分類)하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은 신국악(新國樂)의 경우를 제외하면 작곡자(作曲者)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요목(要目)은 악곡구성별(樂曲構成別)로 분류(分類)해야 할 것이다. 예(例)를 들면 장르별 분류(分類)에서 가악(歌樂)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목(要目)을 분류(分類)할 수 있다.

50..... 가악총류(歌樂總類), 다스름, 반주음악(伴奏音樂)

52..... 가곡남창(歌曲男唱)=우조(羽調), 계면조(界面調)

53..... 가곡여창(歌曲女唱)=우조(羽調), 계면조(界面調)

54..... 가사(歌詞) I =백구사(白鷗詞) -- 권주가(勸酒歌)

55..... 가사(歌詞) II =수양산가(首陽山歌) -- 매화타령(梅花打令)

56..... 경제시조(京制時調)=평시조(平時調), 중허리시조(時調), 지름시조(時調)

57..... 향제시조(鄉制時調)=완제시조, 영제시조, 내포제시조(完制時調, 嶺制時調, 內浦制調)

58..... 범패(梵唄)=깃소리, 훗소리

59..... 안채비소리, 화청(和請)

요목(要目)을 세분(細分)할 경우에는 작곡자(作曲者), 혹은 연주자(演奏者)로 해야 할 것이다.

가곡(歌曲)을 예(例)로 든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521..... 초수대엽, 식수대엽(初數大葉, 貳數大葉)

522..... 중거, 평거(中學, 平舉)

이것을 세분하여 521은

521 1..... 남훈전(南熏殿)

522 2..... 동창(東窓)이

522 3..... 천황씨(天皇氏) 지으신

522 4..... 남팔아(男八兒)

522 5..... 동지(冬至)달

로 세분(細分)할 수 있다. 이것을 가나다순 창자별(唱者別)로 하여 521 1은

521 1 이 1..... 이병성창 남훈전(李炳星唱 南熏殿)

521 1 이 2..... 이주환창 남훈전(李珠煥唱 南熏殿)

521 1 하 1..... 하규일창 남훈전(河圭一唱 南熏殿)

521 1 홍 1..... 홍원기창 남훈전(洪元基唱 南熏殿)

와 같이 세분(細分)할 수 있다.

연주장소, 계기, 연주자 신분, 음악(演奏場所, 契機, 演奏者 身分, 音樂)의 유래(由來)에 의한 분류법(分類法)을 택할 경우에는 강목(綱目)을 다음과 같이 분류(分類)할 수 있다.

0..... 서지, 사전, 색인, 잡지(書誌, 辭典, 索引, 雜誌)

1..... 악이론, 악기론, 악제론, 악리논문(樂理論, 樂器論, 樂制論, 樂理論文)

- 2..... 음악사, 명인명창전, 음악사논문(音樂史, 人名唱傳, 音樂史論文)
- 3..... 전정음악 I (殿庭音樂 I) <종묘악, 문묘악, 범패(宗廟樂, 文廟樂, 梵唄)>
- 4..... 전정음악 II (殿庭音樂 II) <연악, 행악(宴樂, 行樂)>
- 5..... 방음악 I (房音樂 I) <줄풍류>
- 6..... 방음악 II (房音樂 II) <가악(歌樂)>, 방음악 III <잡가(雜歌)>
- 7..... 광장(廣場)(판) 음악(音樂) I <판소리, 선소리, 선염불>, 광장(廣場)(판) 음악(音樂) II <산조(散調), 시나위, 농악(農樂)>
- 8..... 광장(廣場)(판) 음악(音樂) III <무가, 통속민요, 토속민요(巫歌, 通俗民謠, 土俗民謠)>
- 9..... 기타(其他) <연현음악, 신국악(演獻音樂, 新國樂) 等>

이 분류(分類)는 민속학, 인류학적(民俗學, 人類學的)인 입장에서 편리(便利)하게 응용(應用)되는 것인데 무악, 토속민요, 농악(巫樂, 土俗民謠, 農樂)의 자료(資料)가 매우 많은 양(量)을 차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들은 장르별 분류(分類)를 먼저 응용(應用)하는 것보다 지역적 분류법(地域的 分類法)을 먼저 응용(應用)하는 것이 열람자(閱覽者)에게 편리(便利)할 때가 있다. 군단위(郡單位) 혹은 면단위(面單位)로 세분(細分)되면 지역(地域)을 가나다로 분류(分類)하는 법(法)도 있으나 행정지역별분류법(行政地域別分類法)을 응용(應用)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행정지역(行政地域)을 십진분류(十進分類)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作業)이 뒤 따르지만 열람자(閱覽者)에게는 이것이 편리(便利)할 경우가 많다.

행정지역별분류법(行政地域別分類法)에도 장르별 분류법(分類法)을 다시 응용(應用)해야 하는데 토속민요(土俗民謠)의 경우를 예(例)로 들면 노동요, 의식요, 등 기능별 분류(勞動謠, 儀式謠, 等 機能別 分類), 나아가서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역사요, 등 작업종류별 분류(農業勞動謠, 漁業勞動謠, 役使謠, 等 作業種類別 分類),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김매기소리, 벼베는 소리 등 작업별 분류(作業別 分類)를 십진분류(十進分類)에 응용(應用)하는 작업(作業)이 따른다.

#### 4. 맺음말

한국전통음악(韓國傳統音樂)의 자료, 악보, 음반, 녹음, 등(資料, 樂譜, 音盤, 錄音, 等)의 자료(資料)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음악자료(韓國音樂資料)의 십진분류법(十進分類法)이 절실히 필요(必要)한 때가 왔다. 이것은 연주장소(演奏場所), 계기, 연주자 신분(契機, 演奏者 身分) 등에 의한 분류법(分類法)이라든가 악기편성(樂器偏成) 및 장르에 의한 분류법(分類法)이라든가 하는 분류방법론(分類方法論)이 서지면 십진분류(十進分類)는 가능(可能)하다고 본다.

음악(音樂)의 연주 교육(演奏 敎育)을 주로 하는 한국음악학교(韓國音樂學校)(Korean musical conservatory)나, 방송국, 일반학교(放送局, 一般學校)의 도서관(圖書館)에서는 악기편성(樂器編成)에 따른 장르별 분류방법(分類方法)이 합리적(合理的)이겠고 문화재연구소, 민족음악연구소(文化財研究所, 民族音樂研究所) 기타 민속학과, 인류학과, 민족음악학과(民俗學科, 人類學科, 民族音樂學科)의 아카이브에서는 연주, 장소, 계기, 연주자 신분(演奏, 場所, 契機, 演奏者 身分)에 따른 장르별 분류방법(分類方法)이 합리적(合理的)일 수 있다고 본다.